

## 남해군 설화의 가족정서 연구\*

류 경 자\*\*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남해군 가족관계설화의 전개양상<br>과 가족정서 |
| II. 남해군 가족관계설화의 전승양상<br>과 성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남해군에 구비전승되는 설화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망 속에 내재한 가족정서를 살핀 것이다. 방법은 가족관계망 속에서도 서사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주요인물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과 공조(共助)가 바탕이 되어 결말에 이르는 서사 진행의 전후 측면과 구연자의 인식을 살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설화공동체 속에 내면화된 가족에 대한 집단의 정서를 도출해 보았다.

먼저 가족관계망의 기본이 되는 부부이야기에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의 능동적 헌신이다. 남해군 설화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B5A07035665)

\*\* 부산대학교 강사

의 부부이야기 대부분은 애초에 결핍을 안고 시작되는데, 이 결핍을 해소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아내의 무조건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 헌신인 것이다. 이 요구가 순조롭게 받아들여지면 공동체 모두가 만족스럽고 안정을 유지하는 반면, 아내의 부정적 대응이 이어지면 공동체는 분노에 휩싸이며 파국을 맞는다.

두 번째로 아들이야기에는 혈연승계의 필연성과 이를 통한 상생(相生)의 지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모와 아들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유산상속과 효행을 통해 상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간에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되며, 특히 아들의 공조는 부모의 사후까지도 책임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 번째로 딸이야기에는 출가외인 담론의 고수로 인한 애증의 교착상태가 감지된다. 이는 여성의 통과의례에 수반되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양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설화 속 부모와 딸 사이에는 갈등만 있을 뿐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로 며느리이야기에는 가족중심적 배타성과 온전한 가족통합을 꿈꾸는 포용성이라는 양가감정(兩價感情)이 표출되고 있다. 배타성이 한국설화의 보편적인 양상이라면, 포용성은 고립된 도서민(島嶼民)이 주어진 여건 안에서 화합과 안정을 도모코자 모색한 삶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설화, 남해군, 가족정서, 갈등, 공조, 통과의례, 상생, 혈연승계, 출가외인, 배타성, 포용성

## I. 머리말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생활단위를 말

한다.<sup>1)</sup> 인간은 가족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대의식을 가지면서 사회화를 학습해 가는데, 이 가족공동체가 평형을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서가 요구된다. 이 질서는 사회구조의 영향 아래 형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의 역할은 인간생활 전반을 관통하므로, 개인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사회 속에서는 이 가족관계의 역할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남녀 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인간 삶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설화 속에는 이러한 가족관계이야기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 동안 구비설화를 통해 가족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양상들을 살핀 연구들이 이어져 왔는데, 대체로 주제나 특정 가족구성원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효행설화에서는 전통사회의 노년 삶과 효행에 대한 설화적 해결 방법 및 유교적 통념을 벗어난 민간 효의 본질과 실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sup>2)</sup> 우애설화에서는 우애의 실현에 있어 여동서들의 역할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sup>3)</sup> 딸을 소재로 한 ‘출가의인’ 모티프에서는 유산 분배에서의 여성 배제라는 담론적 성격과 함께 부계혈통 중심의 사회 속에서 갈등하는 여성 정체성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sup>4)</sup> 며느리이야기에서는 남성지배적인 전통사회 속 여성들의 삶과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 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1996, 177~201쪽;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409~450쪽; 최기숙, 『‘효/불효’ 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115~156쪽; 신동훈, 『구비설화를 통해 본 민간의 삶과 효(孝)』, 『인문과학논총』 34,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71~86쪽

3) 조춘호, 『구비 우애설화의 양상과 의미』, 『경산대학논문집』 11, 경산대학교, 1993, 3~24쪽; 정충권, 『여성의 시각에서 본 형제 우애 설화에 나타난 가족』,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61~80쪽

4) 심민호, 『<명당을 흠친 딸> 설화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 17세기 조선에서 행해진 나쁜 딸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

대응방식에 대해 논의했다.<sup>5)</sup> 한편 친딸과 양자이야기에서는 설화 속 가족관계의 파탄과 지속을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주의적 시각을 포착, 기존 논의의 확장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sup>6)</sup> 그 외에도 새가족 맞기, 문학치료학적 관점, 갈등 양상과 해결 방법, 가계계승과 혈연의식 등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sup>7)</sup>

그러나 아직까지 가족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작업은 방대하여 한국설화 전반에 걸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그 양상을 도출해 일면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고는 남해지역 설화를 수집하여 그 성격을 파악·정리하는 한 차원에서 선학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남해지역의 가족관계설화<sup>8)</sup>에 나타나는 가족정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 
- 학회, 2005, 301~330쪽;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출가외인’ 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87~230쪽
- 5) 손문숙, 『한국 며느리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은희, 『설화에 나타난 고부관계 연구 - 문제상황주체로서의 며느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6) 임재해, 『친딸과 양자로 형성된 가족관계 파탄과 지속의 주체』,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31~82쪽
- 7) 박현숙, 『설화에 나타난 ‘새식구 들이기’에 대한 두 가지 시선 - <며느리 고르기>와 <사위 고르기> 설화의 비교』,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1~36쪽; 윤승준, 『기대와 실망, 팔시와 보복의 서사 - 구전설화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65~98쪽; 윤미연, 『상생의 가족서사와 그 효용성 연구 - 한국 구비 설화를 바탕으로』,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이지영,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갈등양상 -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43~169쪽;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파격’ -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75~114쪽;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 21, 한국고전학회, 2002, 5~34쪽; 정충권, 『구비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과 혈연문제』, 『구비문학연구』 31, 2010, 83~114쪽
- 8) 필자가 채록하여 엮은 『한국구전설화집』 18권(남해군편 전설), 19권(남해군편 민담1), 20권(남해군편 민담2), 민속원, 2011을 기본 텍스트로 한다.

## II. 남해군 가족관계설화의 전승양상과 성격

필자가 남해군에서 채록한 구비전승 설화 479편 중 가족서사가 나타나는 작품은 160여 편에 이른다. 이것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망과, 그 속에서 보이는 갈등이나 공조(共助)를 중심으로 결말의 측면을 살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남해군 가족관계설화의 전개양상<sup>9)</sup>

관계	편수	갈등			공조			결말		
		당사자	가족	외부	당사자	가족	외부	화합	해체	손실
부부(48)	48	30	6	4	25	2	2	20	20	8
부모와 자녀(58)	부자	6	3	3	5	1		3	3	
	모자	13	3	5	12	1		8	5	
	부모와 아들	2	2		1			1		1
	부녀	19	16	1	6	1	1	5	6	8
	모녀	1	1			1			1	
	양부모와 양자	2	1		1				2	
	계모와 자녀	15	15				5	4		13
시부모와 며느리(36)	시부와 자부	12	4		12			12		
	시모와 자부	7	7		4	1	1	4	3	
	시부모와 자부	17	17		11	6		11	6	
동기 간(16)	형제	3	3		2			1	1	1
	남매	10	10		2	6	2		8	2
	자매	3	2		1				3	
처부모와 사위(5)	5	2			3	2		3		2
계	163	116	15	5	84	26	10	68	71	24

9) <표>에 제시된 갈등과 공조의 편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가족 간의 갈등과 공조 양상을 파악해 정리한 것이다. 한 편의 이야기 속에는 갈등과 공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 쪽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표시된 '당사자, 가족, 외부'라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고 공조를 하는 관계자 간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도표를 통해 볼 때, 남해군 가족관계설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이다. 그 다음이 부부 간의 이야기인데, 사실상 부부라는 단일관계를 고려한다면 가장 많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시부모와 며느리, 동기 간, 처부모와 사위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동서지간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는 대상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 가장 많은 각편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부녀지간, 모자지간, 그리고 시부모와 며느리 간의 이야기이다. 이들의 관계는 갈등과 공조의 측면에서 가족 간에 상당히 다른 양상이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 당사자들 간에 갈등은 미미한 반면 공조가 활발하다. 그러나 부모와 딸의 경우는 당사자들 간에 갈등은 많이 야기되는 반면 공조의 기반은 취약하다.<sup>10)</sup>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 쌍방이 지닌 가족의식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물 간 관계 양상을 살펴보면, 부녀지간이 19편이나 차지하는 반면 모녀지간은 1편에 불과하다.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많은 것 또한 흥미롭다. 이것들은 대체로 소화(笑話)적 성격을 띠면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설화 구연자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이야기 하면 관용적으로 내뱉는 “흠시아버지를 모실래, 소를 더병에 끌어올릴래”라는 고충의 토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모두가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어 인물 간의 긍정적 정서를 짐작케 한다.<sup>11)</sup>

이러한 남해군의 가족관계설화는 한국설화라는 보편성과 함께 지역설화라는 개별성을 갖는다. 채록된 남해군 가족관계설화의 보편성으로는

10) 딸이야기에서의 공조는 오로지 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의 ‘바리데기이야기’나, 시집간 딸의 집을 방문한 친정아버지의 실수를 재치로 무마해주는 ‘지혜로운 딸이야기’가 있을 뿐이다.

11)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야기는 없느냐고 물으면 버릇처럼 위의 말을 내뱉고는 그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실상 구연에 들어가면 소화(笑話) 쪽으로 치우친다. \*더병: 외양간 위에 여물 등을 올리기 위해 나무로 시렁처럼 만들어 놓은 것

주제의 공통성과 보편적 지향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성은 소재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소재적 차원에서는 반농반어촌적인 지역민의 생업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방법 면에서는 소화(笑話)에 의지해 실상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 예로 며느리설화에 등장하는 ‘밥 안 먹는 며느리 구하기’ 화소가 있다. 다소 극단적이고 억지스러운 면도 있지만, 지역민들 사이에 널리 구연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채롭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는 민족공동체와 척박한 환경의 도서민(島嶼民)이라는 지역공동체가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역민의 삶과 연계된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남해군 가족관계설화의 전개양상과 가족정서

정서(情緒)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주체에게 영향을 미쳐 신체적 표출을 수반하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이것을 가족이라는 집단의 정서로 확대해 보면, 가족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인 의식이 암묵적 질서로 체계화되고 내면화되어 하나의 집단이테올로기를 형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속에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도 포함되겠지만 개별성도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남해지역 설화의 가족관계망을 형성하는 인물들 중 서사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설화공동체에 내면화된 가족에 대한 공동체의 정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남해지역에서 가장 많이 전승되고 있는 부부이야기와 부모와 자녀 간(시부모와 며느리도 포함)의 이야기를 그 대상으로 논의하면서 한국설화로서의 보편성과 지역설화로서의 개별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1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권, 새미, 2006, 814쪽

## 1. 가정의 안정과 아내의 헌신

남해군 설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부이야기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남편으로 인한 결핍 상황이 유독 눈에 띈다. 설화 속에서의 부부갈등은 이 결핍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꼬마신랑이야기에서 보이는 성적 불균형, 바보신랑이야기에서 보이는 지적 불균형, 갱피훤는 마누라 이야기에서 보이는 관념과 지향(志向)의 불일치, 난치병 걸린 남편이야기에서 보이는 부부관계의 지속 불가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결핍으로 인한 부부갈등은 누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상생(相生)과 파탄이라는 상반된 결말을 이끌어내는데, 남해군 설화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주동인물은 여성인 아내이다. 남해지역 설화공동체는 모든 결핍상황을 남편에게로 돌렸기 때문에 그저 여성주체의 처분만을 기다릴 따름이다. 따라서 여성주체의 능동성은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구실을 한다.

옛날에 딸로, 참 이쁜 딸로 키웠는데, 상좌네 집에 딸로 키웠는데, 인자 시집을 보내. …(중략)… 들어간게 짚덩이가, 풍병이 든 짚문딩이가 막, 고름을 칠칠 흘리고 …(중략)… 그 아들 한 개가 문딩이가 돼서, 올때나 걱정을 허고, 이리 가이 있인게, 그리 갖고 인자 이 처니가 생각해 봐도 이 할매가 불쌍해. 총각도 차라본게, 저놈이 문딩이는 문딩이라도 참 미남이고 좋아. …(중략)… 문딩이가 그만 사람술로 해 먹이몬, 그만 때로(허물)을 벗어빼고 좋다꼬. 그리 가이 인자 한참 북적북적 깬 땀에, 인자 제가 그만 딱 빠지끼라. 처니가 제가 들어가 그만 제가 술로 허끼라.<sup>13)</sup>

위에 소개된 이야기의 개략적인 내용은 부잣집 처녀가 속아서 문둥병자에게로 시집을 갔으나,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문둥병 든 남

13) 류경자, 『한국구전설화집』 20(남해군편 민담 2), 민속원, 2011, 80~82쪽. <남편 문둥병 고친 여자> - \* 이후부터 출처는 책명과 권수(편명)만 표기하기로 한다.

편을 위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려고 하는 순간 술 안에서 뱀이 솟구치는 바람에 희생을 피하고 약을 구해 남편을 낮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헌신에 의존한 가정의 안정 지향은 한국설화 전반에 깔린 보편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속아서 문둥병자와 결혼을 한 처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스스로 희생을 각오한다. 이러한 여성주체의 무조건적이고 능동적인 공조와 헌신은 남해군 설화의 부부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남해지역 설화공동체의 요구이자 지역민들의 사고 저변에 깔린 가족정서이다.

특히 남해지역에 있어 아내의 무조건적인 헌신은 이야기의 결말을 화합으로 이끄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때로는 여성주체의 능동적인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물(微物)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sup>14)</sup> 방해자를 등장시키기도 한다.<sup>15)</sup> 이러한 이야기들은 일방적인 여성의 공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남편의 존재나 역할은 부수적이다. 그러다보니 이야기의 전면에는 오로지 아내의 행위와 아내가 느끼는 연민의 정서만이 짙게 깔려 있다.

반면 결핍상황에 대한 아내의 포기나 성급함 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국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깡피훤는 마누라’ 유형이다. 이 깡피훤는 마누라 이야기에서의 갈등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조금의 공조도 없는 남편으로 인해 발생한다.<sup>16)</sup> 이는 서로의 관념과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연유한다. 아내는 현실 삶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포부

14)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376~378쪽, <뱀을 보고 배운 정절>

15) 『한국구전설화집』 20(민담 2), 524~529쪽, <뒤바뀐 신랑 찾은 신부>

16) 명당이야기나 변신이야기 등에서도 아내의 부정적 대응이 가정의 파탄이나 손실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책임은 아내를 불신하거나 배제한 남편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있어 설화공동체의 요구와 가족정서를 짐작하게 한다.

에만 매진한 채 집안일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절망감과 분노를 발하며 집을 나가버리고, 남편은 어려움을 딛고 과거에 급제한다. 부임지로 가던 남편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아내와 재회한다. 따라가겠노라고 매달리는 아내에게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음으로써 묵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로 인해 아내는 거부당하거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내의 회한과 원망이 응어리져 있다.

한국설화에서 ‘갱피훤는 마누라’의 보편적인 내용은 아내의 배신과 남편의 출세, 부부의 재회와 이별 또는 아내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낮이 매미가 되는 것 등으로 결말짓는다.<sup>17)</sup>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독특하게도 이 ‘갱피훤는 마누라’가 마을전설로 전용되면서 여성의 부정적 대응에 대한 극단적 조치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것은 아내의 시신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경계(警戒)의 표징으로 삼는 것인데, 구연자의 태도 또한 강경하다.

(가) 이전에 말이제, 한 사람이 참 머리가 좋고 가개[科擧]로 헐라꼬 용(안간힘)을 많이 썼는데, …(중략)… 서너번 떨어지고 나니까 살림이 그만 다 날아가 비렸어. …(중략)… 야단을 친단 말이야. 그런께너 이 사람은 참 미안허기 짝이 없어. …(중략)… “내 잘못된 걸 용서해주라.” …(중략)… “나는 니한께 못 살겠다.” 쿠고 그만 패악을 써고 나가비렸는 기라. …(중략)… “저기 할미당에 저기다가 돌로 덜내비고 춤(침)을 벨아 비고 돌로 내비고 가야 고기가 잘 팔리고 그날 잘된다.”고 [칭중: 흠흠흠.] …(중략)… “예레끼! 더런~년! 그 남편허고 살았이몬 니가 좋은 깬데, 에이~ 더런년! 남편 내비고 간 더런 년!” 험시로 텍! 내빈 기라.<sup>18)</sup>  
 (나) 남자는 자꾸 공부만 헐라 쿠제. 묵을 것도 없제. …(중략)… 망구(도대체) 썩(혀)가 빠지기 갱피 훤고 온께, 갱피를 훤어다가 덕석에 넣어

17)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28편의 이야기 중 19편은 아내가 죽거나, 죽어서 매미가 되는 것으로, 8편은 버림받는 것으로, 1편은 남편에게 매맞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연자 중 단 1명만이 남성이다.

18) 『한국구전설화집』 18(전설), 259~265쪽, <창선면 잔두배기의 할미당>

났는데, 비가 말비로 퍼 붓는데, 그 갱피 덕석이 전부 다 떠나가는데, 그것도 비설거지도 허도 안 허고, 그걸 땅개 공부만 허고 앉았더라. 공부만 허고 앉아 있어서, 그래서 올때나 부애(부화)가 나서 안 되겠더라. 도망을 가빴단 말이다. …(중략)… “이 천리말, 말 발두덕(발자국)만 뵙고(밟고) 따라 오라.” 쿠더란다. …(중략)… 우쭈 따라가끼고? …(중략)… 가다가 가다가 재와서(겨워서), 궁(힘)이 애씨서(부쳐서) 그만 그 자리서 그만…<sup>19)</sup>

위의 이야기 (가)는 남성이 구연한 마을전설로 ‘갱피훤는 마누라’의 독특한 유형이며, (나)는 여성이 구연한 일반적인 유형이다. 남성구연자는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내의 태도에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강한 응징을 하는 반면, 여성구연자들은 대체로 아내의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아내의 심정에 동조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구연자들의 의식이 반영된 때문인지 여성이 구연한 9편의 이야기 중 절반이 넘는 5편이 아내의 죽음 대신 부부의 이별만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념에 밀려 이야기의 결말을 용서와 화합으로 이끌어내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sup>20)</sup>

그런데 이러한 여성주체의 부정적 대응이 용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혼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꼬마신랑이야기’에서이다. 이는 다름 아닌 남성주체인 꼬마신랑의 기지(機智)에 의해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부정적 대응에 대한 용인은 남해군의 부부이야기에 있어 극히 드문 현상으로, 무엇보다도 남성주체가 갈등을 타개하고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년여성과 꼬마신랑의 성적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된 갈등이 설화에서는 꼬마신랑의 철부지행동을

19) 『한국구전설화집』 18(전설), 371~373쪽, <매미가 된 갱피훤는 마누라(1)>

20) 한국설화 속 ‘갱피훤는 마누라 이야기’는 단 1편만이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으로 결말짓고 있는데, 남편이 배신한 아내를 받아들이는 대신 수숫대로 종아리를 때려 그 피 때문에 수숫대가 붉어졌다고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사이트, 경남 함안군 군북면 민요 <강피 훤다가 남편에게 종아리 맞은 여자>)

빌미로 전면에 부상한다.

장개를 보냈는데, 철이 없어서 만날 각시한테 뱀을 짓만 허는 기라. …(중략)… 그 간께나 아이! 담부락(담벼락)을 타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어찌기 뱀어서 마, 한 개 썰리쪄대. 각시가. 말로 안 들어서. 갖다 그러케(일러줘서) 그만, 문 살몬(살면) 문 살고, 그만 올매나 뱀을 짓을 했졌는고? 그래서, ‘아이구!~ 인자 저것 때미, 저거 집에 가서 그러 쿠몬(일러주면) 우쨌겠네….’ 그리 세고 있는디, 초립딩이가 그러더란네. …(중략)… 살밖(사립 밖)을 들어갈라 큰께, 각시로 돌아보고, 일곱 살 묵는 초립딩이가 “요 가서 요 말, 저 가서 저 말 허지 말땅!” 그러더란다. [칭중: 허헤헤헤헤. 신랑 놀이 했다.] 그래서 각시가, ‘아!~ 이기, 사랑 놀이 허졌구나!’<sup>21)</sup>

아내는 초립동이 철부지남편을 보면서 사랑이나 신뢰보다는 불만과 미움의 감정이 앞선다. 아내의 이 감정은 거듭되는 꼬마신랑의 철부지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도 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분노로 증폭되고, 결국에는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 예측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뜻밖에도 사건은 늘 탐탁지 않게 여기던 꼬마신랑의 기지에 의해 무마된다. 꼬마신랑은 그릇된 행동을 한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는 것으로 기지를 발휘하는데, 이러한 꼬마신랑의 관용은 아내에게 미래가치로 제시된다.<sup>22)</sup> 그 결과 조혼으로 인한 부부갈등은 해소되고 안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설화공동체가 불합리한 조혼에 따른 부부갈등의 답안을 인물의 미래가치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꼬마신랑에게 성년남성 못지않은 기지와 관용을 부여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열어

21) 『한국구전설화집』 18(전설), 290~294쪽, <남면 가천의 천석꾼이 된 꼬마신랑>

22)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232~234쪽, <목화밭에서 개구리 잡는 꼬마신랑>에서는 아내의 폭력을 오히려 자신이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를 안심시킨다.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꼬마신랑에 대한 갈등과 미래지향성은 남해민 요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sup>23)</sup> 이 인물에 대한 미래지향성은 아내의 인내와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제시되는데, 그 결과 미움과 분노로 표출되던 아내의 부정적 정서는 신뢰와 희망이라는 긍정으로 바뀌게 된다.

정리해 보자면, 결핍으로 시작되는 남해군 설화의 부부이야기에서 남편이 주동적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서사의 진행을 오로지 아내의 능동성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해지역 설화공동체가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내인 여성의 인내와 능동적 헌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혈연승계와 상생의 지속

남해군 설화 속 부모와 아들이야기에서 두드러진 양상이라면, 변신설화를 제외한 대부분이 결말을 화합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갈등은 거의 없거나 강도가 약한 반면 공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놓고 볼 때 부모와 아들 간의 정서는 매우 긍정적이며, 이들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아들을 통한 가계계승이라는 사회적 규범 아래 상생을 지속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통과의례<sup>24)</sup> 중 하나인 우리의 전통혼례는 이들의 욕구

23) 류경자,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2(남해군편)』, 민속원, 2011, 84~86쪽  
“삼각산 문당에 비오나마나 / 나 애린 서방은 얻으나마나 // 나 애린 서방은 후사가 있어도(술 안에 든 밥은 뜬이 돌면 좋고) / 나 많은 서방은 후사가 없네(나 애린 서방님은 나이 차면 좋다)”

24) 반 겐넵은 통과의례를 3단계로 나누었는데, 개인이 이전에 속했던 집단이나 상태에서부터 분리되는 분리의례(分離儀禮), 새로운 집단이나 상태로의 이행을 위한 전이의례(轉移儀禮), 그리고 새로운 집단이나 상태로 통합되는 통합의례(統合儀禮)가 그것이다.(Arnold van Gennep(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40쪽)

를 충족시키는데 일조해 왔다. 초행을 떠나 처가에서 예를 치르고 제 집으로 돌아오는 신랑에게 있어 혼례의 전 과정은 순환하는 원을 그린다. 즉 미리부터 완성되게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sup>25)</sup> 때문에 아들의 이 통과 의례는 분리와 동시에 동일한 상태의 통합으로 이어지는 통합의례가 된다.

남해군의 설화에는 부자(父子) 간의 이야기보다 모자(母子) 간의 이야기가 훨씬 많다. 특히 효행과 관계된 유형은 부자 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모자 간에만 등장하는데 홀어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노년 여성의 삶이 노년 남성에 비해 길며, 철저히 아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6)</sup> 이러한 노년 삶에 대한 여성의 불안은 사후세계를 넘나드는 집착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아들의 환생을 이끌어내 노후를 보장받는다.<sup>27)</sup> 부모와 자녀의 공조에 있어서는 효행이 아들의 공조를 대표하는 방식이며, 아버지는 유산상속, 어머니는 계도(啓導)로 나타난다.<sup>28)</sup> 특히 모자 간에 있어서는 효행, 계도와 더불어 복종도 공조의 바탕이 되고 있다.

(가) “오디(어디)라도 댕기몬 우리 엄마 약이 있겠제.” 그리서 업고 간다. 업고 오이 간께, 적(자기)엄마가, “좀 쉬(쉬어) 가자.” 허더란네. 그리서 언덕 밑에 쉼성 본께, 장꾸영(장끼)이 피물새(피투성이) 돼 가 죽었더라네. …(중략)… 믹이고 아이! 병이 좀 반치나 낫아. …(중략)… 그 비룽에 간께 용의 뺨다구가 거게 있더라네. …(중략)… 그런께 효도몬 하늘

25) 김열규 외, 『가(家)와 가문(家門)』,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12~13쪽

26) 김대숙은 효의 대상이 역사 기록이나 문헌설화에서 아버지인 것과는 달리 구비설화에서는 어머니로 설정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을 들면서, 그 이유로 여자가 오래 산다는 실질적 조건과 혼자되었을 때 재혼하지 않고 아들에게 의지하는 점, 끈끈한 모자관계의 형성 등을 들었다.(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1996, 182쪽)

27)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의 환생을 이끌어내 노후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한다.<춘아춘아 고삼춘아>

28) 계도를 제대로 못해 아들에게 누가 되는 어머니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효도몬 그만 뭐이라도 지성이몬 감천이라.<sup>29)</sup>

(나) “... 뭐 이거는 우찌고 저찌고...” 막 그리 샐거덩. 그런께, “아이구!~ 우리 어매가 말 많은 디는 풀지마라 쿠더라.”꼬 또 싸 째어지고 갔다. 인자 자꾸 간 기, 돌부처 앞에 갔어. 돌부처 앞에 가 가지고, 돌부처로 보고서 사람이라꼬, “비단사려!~ 비단사려!~ 비단 좀 사라.”꼬 ... (중략)... ‘아이구!~ 우리 어매가 말 없는 디 포라(팔라) 쿠더라...’ 싶어서 그만 그 비단보따리로 것다 놔두고 집으로 돌아왔네. ... (중략)... 돌부처로 그만 확~! 밀어빈께 그 밑에 그만 금돈이 수두룩~ 해 가 있더라네.<sup>30)</sup>

위의 이야기 (가)는 효행, (나)는 복종을 통한 공조가 이루어지는 예이다. 이러한 공조관계 속에서 부모와 아들 사이에는 신뢰 속에 상생하는 긍정적 정서가 형성된다. 이 긍정적 정서는 아들이 혼례라는 통과의례를 치른 후에도 연속성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부계로 가계계승을 하는 가족제도와 연관이 있다. 아들의 통과의례는 분리와 동시에 동일한 상태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으며 이전의 상태가 지속된다.

특히 친영(親迎)<sup>31)</sup>에 가까운 남해지역의 혼례풍습은 남성의 통과의례를 한결 수월하게 해주는 반면 여성에게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남해군의 혼례풍습은 한국설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반친영(半親迎)과는 달리 신부집에서 대례(大禮)를 치른 후 큰상을 받고나면 그날로 신랑집으로 간다. 신랑집에 도착해 큰상을 받고나면 신부측 상객(上客)들은 신부

29) 『한국구전설화집』 20(민담 2), 34~36쪽, <효성으로 어머니 병을 고친 아들>

30) 『한국구전설화집』 20(민담 2), 248~251쪽, <돌부처에게 비단을 판 아들>

31) 고려 이래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혼인 형태는 혼인 후 남자가 여자집에 머물러 생활하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었다. 조선 초기 유교적 사회 윤리의 실천을 모색하던 위정자들은 이러한 혼인제도가 “양(陽)이 음(陰)을 따르는” 불합리한 제도라 하여 남자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친영(親迎)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8(6쇄), 106~107쪽) 그러나 친영으로의 혼인제도 개혁이 민간에까지 일반화되지 못한 탓인지 설화에서는 대부분이 반친영의 의례를 반영하고 있다.

만 남겨둔 채 모두 돌아온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집에 홀로 남아 초야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sup>32)</sup> 이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설화 구연 세대들이 몸소 겪은 일이며, 선대로부터 이어온 일반적인 풍습이다. 때문에 혼인 이후에도 부모와 아들 간의 정서적 연대는 지속되며, 부모와 아들 간의 공조는 가계계승과 유교 윤리의 실현이라는 대전제 아래 가족공동체 내에서 상생하며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부모는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아들은 부모의 노후와 사후까지도 책임지는 공조를 통해 상생하는 것이다.

남해군 설화에서는 이러한 부모와 아들 간의 상생이 오로지 혈연에 의지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양자이야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설화의 양자(養子)이야기를 보면 많은 부분이 딸과 대비되는 양자 부부의 효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남해군의 양자이야기는 오로지 친자(親子) 찾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친자 찾기는 부친의 사후에 행해지는데, 생자(生者)나 양자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망자(亡者)들의 행위나 선택에 의지해 유도된다는 점에서 더욱 이채롭다.

재산을 양자에게 상속하고 죽은 의붓아버지가 제삿날 양자의 친아버지에 의해 제사상에서 내쫓기는가 하면, 양자가 올린 제삿밥에 머리카락이 들었다는 설정만으로 친아들을 찾아나서는 억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sup>33)</sup> 그리하여 양자이야기는 결국 친자 찾기로 치환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친자들은 하룻밤의 인연으로 얻은 아들들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망자가 생전에는 존재조차 몰랐거나 체면 때문에 무시했던 아들들이다. 그러나 혈연승계의 필연성에 대한 설화공동체의 간절한 욕구가 시공간

32) 신랑신부는 대례 후 큰상을 받고 나면 점심때가 지날 무렵 신부집을 떠난다고 한다. 신랑집에서 초야를 치른 신랑신부는 사흘째 되는 날 신부집으로 첫걸음을 가서 이틀 밤을 자고 돌아온다. 남해지역의 구연자들은 신부집에서 초야를 치르는 익숙지 않은 반친영의 풍습을 구연할 때면 한결같이 ‘옛날에 육지들에는…’(19권 176쪽), ‘강원도 저리 가면…’(19권 505쪽), ‘옛날 정승의 집에서…’(20권 153쪽) 등의 단서를 붙이고 있다.

33) 『한국구전설화집』 20(민담 2), 131~138쪽, <양자의 제삿밥(1), (2)>

을 초월해 그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혈연을 바탕으로 한 아들의 지속적인 공조는 부모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저승에 간계, 저승 문지기가 딱 서서, “당신은 저승에 몬 들어간다! 당신은 자식한테 불효 받는 사람이 저승에 몬 들어간다.” 콧성, “묵고 살라컬랑,” 탄 한 사람을 지적을 험성, “저 사랑하고 같이 땡김성, 지사집 (제사집)이나 뉘스헌 디, 물밥이나 얻어묵고 그리 사라.” 쿠더란네<sup>34)</sup>

위의 인용문은 남해지역민의 사생관(死生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부모가 아들의 공조에 얼마나 연연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용인즉 불효자를 둔 부모는 저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잡귀가 되어 비참한 사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후에 조상신으로 좌정하지 못하고, 떠돌며 인간에게 해악을 끼쳐 물리침을 당하는 부정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부모의 의식 속에는 아들의 봉제사(奉祭祀) 불이행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의식 속에 내재한 아들은 부모의 이승 삶뿐 아니라 저승 삶의 주도권까지도 쥐고 있는 셈이다.

잡귀가 된 아버지는 ‘챗바퀴’<sup>35)</sup>라는 비장의 무기를 지닌 상류잡귀에 의존해 비천한 사후를 이어간다. 이 상류잡귀는 챗바퀴를 사람들의 머리에 씌워 아프게 한 후,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내놓는 음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저승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처참한 상황에 처한 아버지는 불효한 아들에게나마 의탁하고 싶은 마음에 그 챗바퀴를 빌려 아들을 시험한다. 하지만 강포한 아들을 당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단념하고 만다. 이처럼 아들의 공조가 없는 부모는 정서적으로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4) 『한국구전설화집』 20(민담 2), 56~57쪽, <불효자식 챗바퀴 씌우기>

35) 곡식의 가루를 칠 때 사용하는 도구인 ‘체’의 바퀴를 말한다.

## 3. 출가외인 담론과 애증의 교착

한국설화의 딸이야기에서 딸은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남해군 설화에도 그 양상은 마찬가지여서 대부분이 부정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딸은 출가한 딸로, 혼인을 기점으로 그 갈등이 증폭된다. 이것은 여성의 통과의례에 수반된 사회통념에 대한 양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설화 속 여성의 통과의례는 혼인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이 여성의 통과 의례는 분리와 동시에 온전한 통합으로 이어지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 삶에 있어 확연한 전환점이 된다. 그런데 이 여성의례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친정과 시집이라는 두 집단의 의식 사이에 모순점이 발견된다. 친정공동체는 결혼과 동시에 ‘출가외인’이라는 명목 아래 딸을 자신들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자 한다. 반면 시집공동체는 며느리를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쉽사리 받아들여려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의례의 당사자인 여성은 기존의 상태도 아닌, 그렇다고 새로운 상태로 온전히 통합되지도 못한 과도기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남해군 설화에 등장하는 딸과 며느리 이야기의 대부분이 이 과도기적 상태의 여성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며, 특히 이 이야기들에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가) 나중에는 어찌 미알져(미상스러워) 죽겠는고, 미알져서 곡속을 하도 갖다 묵어사서, 지(제) 오몬 한 짐씩 이고 가는다, 나중에는 안 되겠해서, 그만 섬에다가 맷돌을 한 개 얹어 가지고, “아나! 이거 이고 가라.” 해 놓은께, 맷돌 든 지도 모리고 그걸 보도시(겨우) 땀성, 맷돌 한 개로 든 걸 이고 가더란다.<sup>36)</sup>

36)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130~131쪽, <맷돌을 이고 가는 욕심 많은 딸 (3)> - <친정의 업을 이고 간 욕심 많은 딸>에서는 맷돌을 넣었는데, 열어보니 친정의 업구렁이가 들어있어 친정이 망했다고 한다.

(나) 옛날 옛날 예전에, 적아배가 인자 매늘네 집에 간다고 갔더란네. 간께나 메느리는 베로 쪽~ 뺨치놓고 매다가, 천방지방 일어나서 밥을 해서 주고, 인자 또 딸네집에 갔더란네. 딸네집에 가 놓은까나, 딸은 베로 째서로, “아이구!~ 아버지, 큰일로 채리 놔서 점심도 못 해 주고, 저녁밥도 못 해 줍니다.” …(중략)… 죽었다꼬. 그리 비임(부고)을 가라 캐 놓은께, …(중략)… “… 울 밑에 논 서마지기~ 지떡(유산 상속)해 준 울 아버지~…” …(중략)… 별떡 일어남성, “이 년! 잡아 직인다!” 큰께, “아이구!~ 내 울음이 정울음인가? 울아배 죽음이 정죽음인가?” 험성, 하하 웃음성 가 빼는 기라.<sup>37)</sup>

위의 (가)와 (나) 이야기에서 부모와 딸의 관계는 아들과 달리 갈등만 있을 뿐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갈등의 뿌리는 당사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부모는 딸을 시집보냄과 동시에 ‘출가의외인’이라는 사회적 담론을 고수하며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기를 원한다. 하지만 딸은 아직 부모의 뜻을 그대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딸은 친정의 재물을 축내는 것에 대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며, 심지어는 재산상속에까지도 관여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와 딸 사이의 상반된 인식은 내적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친정재산을 넘보는 딸의 행위는 알미움이나 껄뽀함을 넘어서 용납될 수 없는 도둑으로까지 간주된다. 즉 ‘출가의외인’이라는 담론 아래 딸은 가족 공동체에 손실을 끼치는 부정적 인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sup>38)</sup>

이러한 딸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효행설화에서 딸을 배제시키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출가하지 않은 딸<sup>39)</sup>에 대해서도 가혹한

37)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132~133쪽, <우리아버지 죽음이 정죽음인가(1)>

38) 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대표적인 설화는 <명당을 훔친 딸> 유형으로, 남해군에도 <친정 못자리 빼는 딸(1),(2)>가 있다. - 19(민담 1), 116~120쪽 - 설화에 나타나는 딸과 부모 사이의 상반된 의식에 대해서는 설화의 역사성과 전승자의 현실인식 사이에서 오는 충돌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임재혜, 『친딸과 양자로 형성된 가족관계 파탄과 지속의 주체』,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32쪽)

측면을 드러낸다. 남해군 설화에서 딸이 효행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데, 그마저도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sup>40)</sup> 그리고 애초에 딸을 가족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양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출가 전의 딸이야기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부녀 간의 근친상간을 다룬 이야기,<sup>41)</sup> 딸이 파탄을 몰고 오는 이물(異物)로 환생하거나 변신하는 이야기<sup>42)</sup>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이야기들의 저변에는 딸의 분리를 염두에 둔 부모의 두려움이라는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 무의식 속에 내재한 두려움은 딸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두 번씩이나 버리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설화 속 딸이야기들은 애증(愛憎)의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고착화되고 있다. 이것은 환생을 통해서라도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아들과는 사뭇 다른 정서이다.

불효의 경우에도 아들에게는 관대한 반면 딸에게는 혹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불효자식 쳇바퀴 씌우기>와 <뱀이 된 욕심 많은 딸><sup>43)</sup>이다. 둘 다 곤경에 처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불효를 범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 결말은 판이하다. 앞에서 거론한 바 있는 <불효자식 쳇바퀴 씌우기>의 서사는 강포한 아들을 당할 수 없게 된 아버지가 단념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결말짓는다. 하지만 <뱀이 된 욕심 많은 딸>에서는 사위보다 못한 딸이라며 딸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증폭시켜 딸을 뱀으로 화하게 한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바위로 짓눌러 놓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러한 딸이야기들에서 보이는 딸의 부정적 이미지는 ‘출가외인’이라

39) 남해군 설화에서 출가하지 않은 딸의 이야기는 바리데기이야기(3편), 근친상간 이야기(3편), 딸로 환생한 고양이이야기(1편)가 있다.

40) <바리데기 효도한다>가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41) 『한국구전설화집』 18(전설), 281~286쪽, <사랑도의 옥녀봉(1)~(2)>; 『한국구전설화집』 20(민담 2), 124~126쪽, <제사 잘못 지내 딸과 붙어먹은 아버지>

42)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405~410쪽, <환생한 고양이의 복수>; 284~309쪽, <오빠 한 때, 딸 한 때(1)~(7)>

43)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147~149쪽, <뱀이 된 욕심 많은 딸>

는 사회적 담론이 민중 속에 가시화된 허구적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설화와 구연자의 의식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보이며 애증의 교착 상태가 감지된다. 남해지역 설화구연자들은 딸이야기를 하면서 “옛날부터 딸은 도둑년이라고 했다.”, “딸은 울 밑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지만 해도 석 냥어치가 간다는 옛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sup>44)</sup> 한편으로는 “옛날 데는 농사를 못 짓고, 흉년을 만나고 하니까 진짜 배고픈 세상 아니가?”라고 하면서 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땀다고 그렇게 한 게, 영 그만 떡골에 얹어져서 그만…” 하면서 딸에게 당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sup>45)</sup> 이러한 딸이야기들은 고려장설화와 마찬가지로 개연성과 시대성에 기반한 강한 전파력으로 설화공동체 속에 파고들었으며, 사회적 담론 아래 전승을 거듭하면서 설화 속 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각인시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며느리에 대한 배타와 포용의 양가성

아들로 가계를 계승하는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딸의 또 다른 입장인 며느리 역시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거기에도 혈연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식구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중에도 그 정서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며느리의 삶에 집약된 서러움이라는 정서는 우리의 구비문학 전반에 면면히 이어지면서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다.

옛날에 며느리로 봤는데, 어찌 여자가 밥을 많이 묵어여. 밥을 많이 묵어서 아무래도 살림에 인자 축이 나고 돈 살겠헌께나, 그만 며느리로 쫓가 내뻬어. 쫓가 내뻬고 나서 입 없는 며느리로 구허로 멩긴께, 저~ 삼신군부로 다 대임시로 입도 없는 며느리로 얻었어. …(중략)… 하리(하루)는

44)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133쪽, 143쪽

45)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131쪽, 129쪽 - ‘떡골’이란 ‘떡이 놓여있는 자리’라는 뜻으로, ‘떡골에 얹어지다’라는 말은 아주 잘된 경우를 이룰 때 하는 말이다.

맹기(망)로 본께니, …(중략)… 큰 가매술을 씻어 잿히더니, 쌀로 한 말이나 갖다 들어붓고 밥을 허더라 캐. …(중략)… 이 정시리(정수리)로 요리, 머리로 딱 떠덜이더니(들더니) 그 마, 하나씩 하나씩 그 서른 덩거리로 제이 다 주 열더라 캐. …(중략)… 그만 쫓가내 빼더라 캐. 그리 갖고 또 인자 가, 오나 입 있는 며느리로 도로 찾아갖고 잘 살았대요.<sup>46)</sup>

위에 소개된 이야기는 일명 ‘입 없는 며느리’라고도 불리는데, 남해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타지역에는 거의 전승되지 않는 설화이다. 내용을 보면 단지 며느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축출을 당한다. 이야기 자체만 보자면 먹을거리에 집착하는 한 편의 소화(笑話)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선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환경이 척박하고, 생활기반이 열악한 환경적 요인도 한몫을 한다.<sup>47)</sup>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의 생성을 환경적 요인으로만 돌리기 전에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측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존 가족공동체의 사고 저변에는 새로운 가족구성원인 며느리를 온전한 가족으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매정하고도 배타적인 가족정서가 깔려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설화 속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sup>48)</sup> 그 결과 며느리는 동고동락해야 할 가족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 며느리는 결국 출가나 죽음으로 파국을 맞기도 한다. 남해군의 민요에는 가족 소외로 인한 며느리의 서러운 정서와 죽음으로 치달는 파국이 잘 드러나 있다.<sup>49)</sup>

46)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22~24쪽, <밥 안 먹는 며느리(1)>

47) 남해군의 설화 속에는 먹을거리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는 이야기들이 더러 등장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중이 된 며느리>인데, 종일 밭을 매고 온 며느리에게 죽을 쑤어서는 웃국물만 떠주자 며느리가 중이 되어 나가버리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을 맞는 이야기이며, <가라고 가랑비, 있으라고 이슬비>라는 사위 이야기에서도 궁핍한 삶 속에서의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1권, 96~99쪽, <개가 둔갑하여 며느리를 죽이다>

이러한 며느리의 고난은 혼례의 과정을 통해 남성처럼 순환하는 원을 그리지 못하는 전통사회 한국여성들의 모순된 삶에서 연유한다. 혼례를 통해 친정으로부터의 분리의례를 치르고도 시집공동체에 온전히 통합되지 못한 며느리는 소속과 안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딸과 며느리라는 이중적 입장을 지닌 여성은 친정과 시집이라는 두 공동체 모두에 ‘출가외인’<sup>50)</sup>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기적 상태에 놓인 며느리가 시집이라는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통합되는 데에는 자녀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자녀의 생산은 여성이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가족공동체에 통합되어 완성된 삶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해결책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어머니(또는 부부)는 남”이라고 말하는 일군의 설화들에서는 이마저도 순수 부계혈통이라는 장애에 부딪치고 있어 여성의 온전한 통합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남해군의 며느리이야기에는 가족중심적 배타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소화(笑話)의 성격을 띤 일군의 이야기들에는 가족통합을 꿈꾸는 포용성이 전면에 깔려 있다.

며느리를 우주 참 뉘, 사랑시럽아서, 며느리를 보듬지도(부둥켜안지도) 몬 허고, 손에 었도 못 허는 기고, …(중략)… “우리 참 뉘, 며느리고 고부간에 우리가 참, 들도 없고, 이 우리 며느리 하나이고, 어미도 하나이고 현디, 우리 서로 좋은 이야기나 한번 해 보자.” …(중략)… 아이! 이, 가만히 씨어매가 그만 성질이 바짝 올랐단 말이제이. 이 지(자기)는 사랑시럽다꼬 그 뉘, 들은 것, 본 것 뉘, 그런 것도 모리결랑 옛말을 허든지, 고담

49) 류경자,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2(남해군편)』, 민속원, 2011, 199~200쪽, <나 하나를 남이라고>

50) 시집에서의 ‘출가외인’이라는 용어는 배타적 혈통 원리에 기반한 ‘출가하여 들어온 외인’이라는 뜻임.(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출가외인’ 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215쪽)

을 허든지 허라 큰개 아이, 고담은 중국 진시황이 쌓은 성이 고담이라 쿠고, 옛말은 상사 조자룡이 타던 말이 옛말이라 쿠고, 아이구! 가만히 본개 이 말을 막는 기제. …(중략)… “아이구! 내 이 며느리한테는 도저히 말을 못 붙이겠다. 말 가이고는 안 되겠다. 아이구! 우리 며느리로 너겨겨정 잘 살아라.” …(중략)… 그리 며느리가 똑똑고 찜, 일자 며느리더란다.<sup>51)</sup>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어머니는 한국설화의 며느리이야기에 흔히 등장하는 배타적인 시어머니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새식구가 된 며느리에게 순전한 애정을 보이며, 며느리와의 온전한 통합을 위해 먼저 제스처를 취하는 포용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취한 제스처에 오히려 어깃장으로 응수하는 전도된 상황을 연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재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어머니의 아량은 설화의 결말을 화합으로 이끈다. 구연자 역시도 이처럼 전도된 상황에 대해 ‘똑똑한 일류 며느리’라는 표현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전도된 상황은 남해군의 며느리이야기에 많이 등장하는 화소이다.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며느리에게서 ‘어머니’ 소리를 듣고 싶어 부엌문에 실뱀을 걸어두고 기다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나,<sup>52)</sup> 말버릇이 나쁜 며느리에게 공대를 가르치는 시아버지,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귀찮게 인사를 해대는 며느리를 내쫓기는 커녕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마는 시아버지의 모습에서도<sup>53)</sup> 화합을 추구하는 포용성은 두루 발견되고 있다. 이점은 남해지역 며느리설화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설화에 며느리의 고난이나 효행에 대한 이야기들은 무수히 등장한다. 그러나 남해군의 이야기처럼 며느리의 어깃장이나 부족함에도 불

51)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64~68쪽, <며느리 이야기 시키려다 당한 시어머니(1)>

52)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73~74쪽, <‘어머니’ 소리 들으려다 실패한 시어머니>

53) 『한국구전설화집』 19(민담 1), 75~82쪽, <무조건 공대하는 며느리(2)>, <지나치게 인사하는 며느리>

구하고 그것을 감싸며 포용하는 이야기는 드물다.<sup>54)</sup> 이러한 포용성은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고립된 삶 속에서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며 나름의 안정과 화합을 모색하는 가운데 찾아낸 삶의 방식으로 수렴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찾아낸 삶의 한 모습을 교훈이나 진지함보다는 우스갯거리인 소화의 표현방식을 빌어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해군 설화는 한국설화의 며느리이야기에서 보이는 배타성과 함께 지역민이 가정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모색한 포용성이라는 양가감정(兩價感情)을 아우르면서 전승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남해군에 구비전승되는 설화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망 속에 내재한 가족정서를 살펴보았다. 가족관계망 속에서도 서사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주요인물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과 공조(共助)가 바탕이 되어 결말에 이르는 서사 진행의 전후 측면과 구연자의 인식을 살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설화공동체 속에 내면화된 가족에 대한 집단의 정서를 도출해 보았다.

먼저 가족관계망의 기본이 되는 부부이야기에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의 능동적 헌신이다. 남해군 설화의 부부이야기 대부분은 애초에 결핍을 안고 시작되는데, 이 결핍을 해소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아내의 무조

54) 한국설화에는 며느리의 불효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나 남편이 책략을 써서 며느리를 효부로 만드는 이야기들도 등장하지만 남편이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며느리의 고난이나 효행 이야기에 비해 극히 적은 양에 해당한다. (이은희, 『설화에 나타난 고부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11쪽 며느리이야기 유형분류표 참조; 손문숙, 『한국 며느리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건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 헌신인 것이다. 이 요구가 순조롭게 받아들여지면 공동체 모두가 만족스럽고 안정을 유지하는 반면, 아내의 부정적 대응이 이어지면 공동체는 분노에 휩싸이며 파국을 맞는다.

두 번째로 아들이야기에는 혈연승계의 필연성과 이를 통한 상생(相生)의 지속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부모와 아들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유산상속과 효행을 통해 상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간에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가 유지되며, 특히 아들의 공조는 부모의 사후까지도 책임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세 번째로 딸이야기에는 출가외인 담론의 고수로 인한 애증의 교착상태가 감지된다. 이는 여성의 통과의례에 수반되는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 것으로 양자 간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설화 속 부모와 딸 사이에는 갈등만 있을 뿐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로 며느리이야기에는 가족중심적 배타성과 온전한 가족통합을 꿈꾸는 포용성이라는 양가감정(兩價感情)이 표출되고 있다. 배타성이 한국설화의 보편적인 양상이라면, 포용성은 고립된 도서민이 가정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코자 모색한 삶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대숙,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3, 한국구비문학회, 1996, 177~201쪽
- 김열규 외, 『家와 家門』,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1988
- 김익균, 『가족관계학』, 교육과학사, 2008
- 류경자, 『한국구전설화집』 18(남해군편 전설), 19(남해군편 민담1), 20(남해군편 민담2), 민속원, 2011
- \_\_\_\_\_, 『현장에서 조사한 구비전승민요 2 - 남해군편』, 민속원, 2011
- 박현숙, 「설화에 나타난 ‘새식구 들이기’에 대한 두 가지 시선 - <며느리 고르기>와 <사위 고르기> 설화의 비교」,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1~36쪽
- 손문숙, 「한국 며느리설화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신동훈, 「구비설화를 통해 본 민간의 삶과 효(孝)」, 『인문과학논총』 34,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2000, 71~86쪽
- 심민호, 「<명당을 흠친 딸> 설화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 17세기 조선에서 행해진 나쁜 딸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301~330쪽
- 윤미연, 「상생의 가족서사와 그 효용성 연구 - 한국 구비 설화를 바탕으로」,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 윤승준, 「기대와 실망, 괘시와 보복의 서사 - 구전설화 속 처가와 사위의 관계」,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65~98쪽
- 이은희, 「설화에 나타난 고부관계 연구 - 문제상황주체로서의 며느리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인경,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 『구비문학연구』 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409~450쪽
- \_\_\_\_\_, 「구비설화에 나타난 ‘출가외인’ 담론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고

- 전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187~230쪽
- \_\_\_\_\_,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 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5~34쪽
- 이지영,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갈등양상 -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143~169쪽
- 임재해, 『친딸과 양자로 형성된 가족관계 파탄과 지속의 주체』,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31~82쪽
- 정충권, 『구비 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과 혈연문제』, 『구비문학연구』 31, 2010, 83~114쪽
- \_\_\_\_\_, 『여성의 시각에서 본 형제 우애 설화에 나타난 가족』, 『문학치료연구』 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61~80쪽
- 조춘호, 『구비 우애설화의 양상과 의미』, 『경산대학논문집』 11, 경산대학교, 1993, 3~24쪽
- 최기숙, 『‘효/불효’ 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115~156쪽
- 최재석, 『한국의 가족과 사회』, 경인문화사, 2009
-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과격’ -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75~114쪽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의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8(6쇄)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하권, 새미, 200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1권, 1980
- Arnold van Gennep(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Abstract>

## A Study on Family Sentiment of the Tales in Namhae-gun\*

Ryu, Kyung-ja

This study examines family affection inherent in family network based on the transmission of oral epic tales in Namhae-gun. The methodology focused on the stories of main characters who constructed a central axis of narration in the relational net of family. Moreover, the thesis considers the whole process of the narrative from various aspects based on the stories that emerged from conflicts and the mutual assistance among family members. By doing so, a conclusion has been drawn relating to a collective affection inherent in family community.

First of all, in the tales of married couples, a basic of the relational family net, there was a full of devotion the wife for a sustainable community. Most tales related to married couples in Namhae-gun started with a some kind of lack in somewhere in the couple's life, and such insufficiencies required a wife's voluntary dedication and unconditional support to her family in order to alleviate scarcity. If the wife acted so, the community would be satisfied or even take it for granted and things would follow their normal course but if ever the wife was to act otherwise the community would fly into a violent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2S1A5B5A07035665)

anger that would likely end up by collapsing it.

Secondly, in the tales of Sons, there needed to be a necessity of succession by blood relation and a continuity of coexistence through it. To do so, an intimate complementary cooperation dwelt between parents and son through succession to property and filial obedience. Therefore, strong positive affection used to seal the parents and son relation. Furthermore, a support to parents was construed as an imperative element for the son, who was also expect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post management of his parents.

Thirdly, in the tales of Daughters, there seemed to be a deadlock created by a feeling of love and hatred due to a discourse of 'being excluded from family'. This was based on social convention including the rite of passage from young girl to women, which was caused by perception difference between the two periods. There was nothing else but conflicts between parents and daughter due to the abovementioned reasons, and no cooperative work was expected.

Fourthly, in the tales of Daughter-in-laws, it existed emotional ambivalence that evolved around family-centered exclusiveness and a sense of tolerance for family integration. If such exclusiveness is a universal aspect of the Korean tale, a sense of magnanimity is a way of a life that sought for harmony and peace by isolated islander.

Key word: tale, Namhae-gun, family sentiment, conflict, cooperation, rite of passage, relation of coexistence, blood relation, no longer a member of a family, exclusiveness, magnanimity.

남해군 설화의 가족정서 연구 173

■ 논문접수 : 2014년 11월 18일

■ 심사완료 : 2014년 12월 18일

■ 게재확정 : 2014년 12월 19일